

## 100-020. 内地검사국 정보철

■ 1928년부터 1930년까지 日本内 検事局에서 京城地方法院으로 업무 참고자료로 송부되어 온 사상 관련 비밀문서 21건 수록

### - 문건내용

- 無政府主義系 思想團體表
- 日本共產黨 제1회 公判概況
- 日本共產黨 被告事件 判決結果 通報
- 日本共產黨事件 判決寫 送付의 件
- 朝鮮共產黨中央委員 金漢卿에 대한 聽取書寫 送付의 件
- 秘密結社 朝鮮共產黨 및 高麗共產青年會 治安維持法 違反被告事件 豫審請求書寫 送付의 件
- 在本邦 露國官吏 및 共產黨員에 관한 件
-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被疑者の 身柄에 관한 件 回答
- 朝鮮에서의 重大事件判決 등 送付의 件
- 思想研究資料 送付의 件
- 鄭輝世에 대한 電報囑託의 回答
- 高麗共產青年會 日本總局 關西地域局 加入者 檢舉의 件
- 拘引狀 執行囑託에 관한 件 回答
- 新幹會 大版支會 幹部 金文準 調事書翰
- 神奈川縣 川崎市에서 메이데이 暴動化를 目的으로 拳銃發射 등 事故發生에 관한 件
- 日本共產黨 關係 治安維持法 違反被告事件(4·16 事件)의 判決書寫 送付의 件
- 日本共產黨(2·24사건 관계)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豫審請求의 件
- 森谷克己에 대한 強制處分の 件
- 日本共產青年同盟 關係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豫審請求의 件
- 中國共產黨 關係 治安維持法 違反事件에 관한 回答
- 中國共產黨 治安維持法 違反被告人 豫審請求書寫 送付의 件
- 無政府主義系 思想團體表 : 名稱, 同志數, 中心人物, 機關紙, 本部로 區分하여 1927년 6월 10일 현재의 상황을 작성하였으며, 21개 단체가 있다. 國家主義團體는 1927년 5월 20일 현재 21개 단체가 있으며, 共產主義系團體는 26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日本共產黨 제1회 公判概況 : 1928년 11월 7일 名古屋에서의 일본공산당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피고사건으로 長谷川民之助·高井安太郎·竹田角次郎·五十君章·飯田治三郎 등이 거명되어 있으며,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朝鮮共產黨中央委員 金漢卿에 대한 聽取書寫送付의 件 : 大阪地方裁判所 檢事局 思想部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조선공산당 黨則 全文 57條가 수록되어 있다. 金漢卿은 金均, 李福來, 洪友石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本籍이 忠北 堤川郡 鳳陽面 美堂里, 出生地는 京城府 社稷洞이며, 普成專門學校(現 高麗大學校) 特科法學部를 卒業한 후 渡日하였다. 普成專門에 在學中 불세비키系의 新興青年同盟과 民族系인 華清團에 관계하고 있었다. 이 聽取書에 등장한 人物로는, 李東輝·金俊淵을 비롯하여 公산당 경기도 대표 鄭栢, 강원도 대표 韓明燦, 함남도 대표 李啟心, 함북도 대표 李載夏, 전남도 대표 金在明, 평남도 대표 吳基周, 황해도 대표 李京鎬, 만주 대표 李仁洙, 中央委員 대표 李廷九, 檢査委員 대표 韓偉健 외에 朴洛鍾·安光泉·崔益翰·姜小泉·韓林·鄭南局·崔益鉉·金澤·

李星泰·尹一·李今奉·梁明·李友秋·印貞植·金相燮·南英祐·金正官·李赫魯·丁叔鎮·鄭寅暖·暖梁鳳順·金鐵圭·尹東鳴·具凡書 등이 등장하고 있다.

- 秘密結社 朝鮮共產黨 및 高麗共產青年會 治安維持法 違反被告事件 豫審請求書寫 送付의 件 : ‘秘密結社 朝鮮共產黨 및 高麗共產青年會 治安維持法 違反被告事件 豫審請求書’는 1929년 1월 21일 東京地方裁判所 檢事局에서 請求한 것이다. 秦柄魯(朝鮮勞動總同盟 庶務部 常任委員)·金鳳禧(朝鮮文印刷所 同聲社 經營者)·許義淳(在上海 韓人青年同盟 上海支部員) 등이 金漢卿·印貞植 등과 연락하여 朝鮮共產黨의 革命에 의한 朝鮮獨立을 謀議한 혐의이다. 宋昌廉(朝鮮勞動總同盟 中央執行委員 政治部長), 金鶴儀(同 中央執行委員長 兼 爭議部長), 朴得鉉(同 中央執行委員 組織宣傳部長)의 혐의 내용도 위와 같다. 李愚震·林鍾雄·趙鶴濟·李雲洙·金斗鎭·朴春星·宋在洪·李元賢·李起澤·朴得龍 등은 朝鮮勞動總同盟, 東京朝鮮勞動組合에 가담하여 朝鮮에 無產者獨裁政治를 수립, 共產主義社會를 實現하고자 하는 점을 알고 활동한 혐의로 豫審請求를 받았다. 金漢卿은 치안유지법 위반, 즉 在內地 朝鮮노동총동맹 상임집행위원 정치교육부장으로, 東京을 중심으로 在內地 朝鮮노동자, 동 청년학생을 목표로 朝鮮민족해방운동에 종사하였기에 예심이 청구되었다. 尹壽岩 및 金友燮도 역시 치안유지법 위반이다. 朝鮮노동총동맹 大阪朝鮮노동조합 집행위원 및 在內地 朝鮮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 겸 동 동맹 大阪지부 상임위원 정치부장, 조직선전부장으로, 朝鮮민족해방을 목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예심이 청구되었다. 金錫舜은 在內地 朝鮮노동총동맹 東京朝鮮노동조합 남부지부장으로 있으면서, 朝鮮의 독립을 도모한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에 의한 예심청구를 받았다. ‘비밀결사 고려공산청년회 치안유지법 위반피고사건 예심청구서 송부의 건’에는 金正泓·文基璉·池在潤·金秉國·朴魯珀·朴台乙·朴得鉉·李相勛의 예심청구서가 일괄되어 있다. 이 가운데 金正泓은 東京朝鮮노동조합 상임위원 정치부장 겸 동 조합 서부지부 서무부장으로 노동운동에 종사하면서 朝鮮독립을 모의한 혐의이며, 文基璉과 池在潤도 직책은 다르지만 같은 혐의로 예심이 청구되고, 金秉國도 같은 동맹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예심이 청구되었다. 朴魯珀은 朝鮮민족주의자 단체인 新幹會 東京支會 조사부장으로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예심을 청구하고, 朴台乙·李相勛도 在內地 朝鮮노동조합 상임위원 조사부장, 東京朝鮮노동조합 북부지부 집행위원장, 朴得鉉도 在內地 朝鮮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정의조사부장으로 역시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예심을 청구하였다.
- 高麗共產青年會 日本總局 關西地域局 加入者 檢舉의 件 : 1929년 7월 21일 京都府知事が 內閣總理大臣을 비롯하여 內務, 拓務, 宮內大臣 및 相關기관에 보고한 것이다. 新幹會 京都支會, 朝鮮청년동맹 京都支部, 京都朝鮮노동조합 등과 연락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한 혐의로 鄭輝世·曹沃鉉·金東榮 등을 검거 하여 조사중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神奈川縣 川崎市에서 메이데이 暴動化를 目的으로 拳銃發射 등 事故發生에 관한 件 : 1930년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하여 참가인원 약 1,500명이 집회한 군중대회에서 죽창 등을 들고 일본 공산당, 일본공산청년동맹원이 침입, 그 중 1명이 권총으로 경찰관을 저격한 사건으로 8명이 검거되었다는 동태보고이다.
- 日本共產黨 關係 治安維持法 違反被告事件(4·16 事件)의 判決書寫 送付의 件 : 속칭 4·16사건으로, 일본인 18명에 대한 판결문이다. 主文과 理由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日本共產黨(2·24사건 關係)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豫審請求의 件 : 일본인 6명에 대한 예비 심판청구의 문건이다. 2·24事件에는 朝鮮인 鄭善浩(當 27年, 경남 밀양군 밀양읍)



- 盧煒澤(當 27年, 전남 고흥군 고흥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日本共產青年同盟 關係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豫審請求의 件 : 神奈川縣 川崎市에서 발생한 메이데이 폭동화사건의 10명에 대한 예심 청구 문건이다.
- 이 편철 중 일본공산당 관계 문건은, 조선공산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京城地方法院 檢事局에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